

책은 안에서 밖으로 만들어 나가자

이정우 | 무크 《디자인 텍스트》 동인 · 계간 《공예와 문화》 편집장

나는 좋은 책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출판인들은 물론, 책을 책답게 만드는 디자이너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누가 날더러 혐오하는 직업을 대어섯 가지 꼽으라면, 그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책표지 디자이너'가 차지할 것이다. 이른바 '책표지 디자이너'라 불리는 사람들은 책의 내재적 질서를 망칠 뿐만 아니라, 서점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표리부동의 시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곤 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내 스스로 책표지만 디자인하는 무기력한 일을 통해 생계와 학업을 이었던 수치스런 20대 시절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 좋은 꼴과 나쁜 꼴의 책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셋째, 수년간 시각 디자인 문화의 문제에 대해 연구하며 궁리를 거듭한 경험 때문이다.

개항 이후에 만들어진 한국어 문화권의 책들은 대개 아름답지 못하다. 우선, 알파벳 문화권에 맞게 개발된 납활자 인쇄술에 한글을 맞추느라 적잖은 실험과 수정의 기간이 필요했다. 일본 식민기 동안 발전시킨 세로짜기 납활자 편집의 미려함은 전후, 애써 획득한 조판질서를

가로짜기로 대체함으로써 다시금 엉망이 됐다. 그 북마전은 사진식자의 시대에 그대로 이어졌다. 심미안이 없는 식자기 조작공들이 뽑아낸 인화지에 올라앉은 문장들은 엉성했다. 그 문장들을 칼로 오려 대지에 붙이는 수고를 거듭했으나 공정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진식자 시대의 책들은 대개 추했다.

1990년대 초반에 매킨토시가 등장해 컴퓨터 편집의 시대가 열렸다. 1980년대 말부터 혼자하기 시작한 '책표지 디자이너'란 직업이 시장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것도 데스크탑 출판이 대중화되면서부터였다. 그 이후 헬레벌떡 만들어 대충대충 찍어대는 몸쓸 풍토가 퍼졌다. 손쉽게 좋은 책꼴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되려 그 질은 저하됐다.

무릇 책 디자이너는 하나의 과제를 받았을 때, 그가 다루게 될 문장들의 건축물이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본문 체제에서 가장 적절하게 읽힐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것은 가독성을 고려한 적절한 판형과 지질, 글꼴 등을 선택하는 것 이상의 문제를 던진다. 기본적인 제반 사항의 선택은 과거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는 선 안에서, 가장 미적으로 우수한 '취향의 선택'을 행하는 보수적 탐미주의자의 자세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디자이너는 그가 다루는 문장들의 역사적 성격과 당대적인 위상 등을 고려해 기본 페이지의 격자구조를 설정해나가야 한다. 그 격자구조들은 일정한 기준점들을 유지하면서 '한 권의 책'이라는 입체적 질서를 구축해야 하기에 가장 중요한 비가시적 규준틀 노릇을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무형의 문자예술에 유형의 몸을 선사하는, 대단히 창조적인 일이다.

제발, 책은 안에서 밖으로 만들어 나가자. 반대로 하면, 디자이너는 싸구려 장사꾼으로 전락한다. 잊지 말라. "책을 쓰다가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질문은, 맨 앞에 무엇을 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파스칼)". ■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통권 제324호 | 2002년 5월 20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이사 ————— 임홍조

편집자문 —————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 박천홍

기자 ————— 강성민 김장근

————— 차정신 박옥순

사진 ————— 김경록

편집디자인 ————— 정병규디자인 | 안지미

————— 박기아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동필 천창현

등록 —————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 732-1434 · 5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 이일수

출판저널 ————— 110 - 190

—————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 732 - 1431 · 2 | 편집

————— 732 - 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 722 - 1174

E-mail —————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 chulpun

천리안 —————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덕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 - 01 - 0219 - 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 - 6

716 - 5616~9, 716 - 5621~3